

## 제4절

#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1. 관광객 5천만명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4.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5. 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 제4절 매력있는 관광·문화산업 육성

### 1. 관광객 5천만명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 1-1. 지역특화 관광자원 개발

##### 가. 관광자원 개발

전남도는 민선6기 2년 차인 2015년에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한 「전남 관광발전 종합계획(2015~2018)」을 수립하고, 총 430개소(‘지정 관광(단)지’ 33개소, ‘문화관광자원’ 211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 등’ 186개소)에 걸쳐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총사업비는 7조 7,736억원으로, 2017년까지 지리산온천 관광지 등 351개소에 2조 904억원을 투입했으며, 2018년에도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등 151개소에 1,179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테마공원, 체험·전시 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지 추가 지정 및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지속해서 관광 트렌드에 입각한 지역별 특화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17년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5,079만명을 기록, ‘2018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이라는 민선6기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했다.

#### 【 연도별 관광객 수 】

(단위 : 천명)

## 【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사 업 별	총 계 획		2017 까지	2018	2018 이후
	개소	사업비			
계	430	77,736	20,904	1,179	55,653
지정관광(단)지개발	33	55,446	8,201	52	47,193
문화관광자원개발	211	14,441	8,075	884	5,48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등	186	7,849	4,628	243	2,978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 나.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전남도는 남해안 관광자원을 광역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여 국제적 관광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했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은 2000년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개년 동안 목표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8개 사업에 538억원을 투입하여 킬러 콘텐츠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16년까지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 6개 사업에 514억원을, 2017년에는 ‘여수 여자만 연안생태휴양마을 조성’, ‘강진 가우도 향기의 섬 조성’ 등에 24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콘텐츠로 개발했다.

도는 이들 사업을 완료하면 서해안 고속도로와 무안국제공항, 서남해안 연도·연륙교 개설 등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21세기 국제 관광거점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道)에서는 앞으로도 아기자기한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 다도해의 일출·일몰의 장관, 공룡화석 등 역사·문화·예술자원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538	280	258
2016까지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조성 등 8건	514	268	246
2017사업	여수 여자만 연안 생태휴양마을 조성 등 2건	24	12	12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다.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전남도는 2008년 통합적·광역적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10년 동안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을 추진했다.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은 하드웨어(구례 산수유테마파크 조성 등)와 소프트웨어(지리산권 7품7미 육성 등) 14개 사업에 542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콘텐츠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2016년까지 산수유테마파크 조성 등 13개소에 497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2017년에는 45억원을 투자, 곡성 기차마을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리산권의 지리산·섬진강 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춘향전·심청전·토지 등 문학자원, 화엄사·쌍계사 등 불교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형 관광개발 방향 및 전략을

도출하고 국토 균형개발에 이바지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리산 국립공원과 섬진강 등 천혜의 수려한 산수와 수많은 문학작품의 배경지로 다양한 예술·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지리산권을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542	307	235
2016까지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 등 13개소	497	280	217
2017사업	섬진강변체험학습장 조성 등 11개소	45	27	18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라. 역사·생태체험형 도보여행길 조성

1) 남도 이순신 길, 「조선수군 재건로」 조성

전남도에서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구국의 일념으로 조선수군 재건을 위해 이동한 행적을 발굴, 「조선수군 재건로」로 조성했다.

「조선수군 재건로」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 등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보 및 자전거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역사·문화체험 탐방길이다.

도에서는 총사업비 39억원(국비 2,285백만원, 도비 225백만원, 시·군비 1,390백만원)을 투입하여 8개 시·군(구례, 곡성,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진도, 해남) 14개 코스, 500km(자동차길 380, 자전거길 40,

걷는길 80)에 걸쳐 조성했다.

도는 8개 시·군 주요거점에 안내해설판 64개소를 설치하고, 구간별 테마 내용을 수록한 가이드북(명량으로 가는 길)과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학교, 군부대, 여행사 등 1,349개소에 배부했다.

또한, 5개 시·군(순천, 구례, 곡성, 보성, 진도)에서 이순신 관련 유숙지·행적지 복원 및 출전장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도에서는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관광자원을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순신 리더십 캠프」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장군을 도와 해전을 승리로 이끈 전라도 백성의 호국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콘텐츠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 2)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정비

전남도는 2015년까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15개소를 정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들이 추천한 후보지에 대해 탐방로 조성 전문가, 여행작가, 도보 여행 전문가 등의 엄격한 현장심사를 거쳐 문화생태탐방로를 선정했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48개소 중 38%에 해당하는 15개소가 전남에 자리하고 있다.

도는 2015년까지 3,387백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탐방로 정비, 편의시설 확충, 스토리텔링 개발지원, 걷기대회 등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탐방로 정비와 함께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함께 개발함으로써 도보여행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 문체부 지정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현황 】

(단위 : 백만원)

지정 연도	탐방로명	구 간	연장 (km)	국 비 지원액 ('09~'15)
합 계		15개소	559.4	3,387
2009	정약용의 남도 유배길	다산수련원~천왕사~구림마을	65.7	230
2010	해남 땅끝길	땅끝마을~이진성지~강진	43	89
	슬로길	완도 청산도	42.2	98
	증도 모실길	신안 증도	42.7	200
	풍류락도 영산가람길	나주 일원	45	1,290
2011	장성 갈재길	백양사~정읍경계	9.3	50
	곡성 섬진강길	구례~곡성~순창	88	100
	담양 수목길	관방제림	8.1	115
2012	무안 갯벌 낙지길	무안 현경면 해안	54	300
	보성 태백산맥 문학기행길	보성 벌교읍내	8	345
	화순 무돌길	화순.담양.광주	52	70
2013	신안 가거도 셋개제길	가거도 일주노선	10.9	200
	진도 아리랑길	진도읍~가계해수욕장	16	200
2015	강진 남도 유배길	누리재~주작산	67.5	50
	해남 땅끝길	대흥사~봉동계곡	7.0	50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3) 문화자원이 풍부한 옛길 「남도 명품길」 조성

전남도는 2016년부터 문화자원이 풍부한 옛길을 전남 대표 '남도

명품길'로 선정·조성했다.

'남도 명품길'은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서려 있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숲길, 해안길, 들길, 강변길 등을 연결하여 치유와 사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걷기에 적합한 길을 선정했다.

도는 남도 명품길 1차 사업은 2016년에 공모를 통해 '해남 달마고도'와 '강진 바스락길'을 선정하여 30억을 투자하여 2017년에 개통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구도의 길」이란 이름으로 개통된 달마고도는 해남 송지면 미황사와 달마산 일원에 조성했으며, 총 17.47km로 미황사에서 큰바람재, 노시랑골, 물고리재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구성했다.

강진 바스락길은 백련사, 다산초당, 다산수련원, 석문공원, 주작산 휴양림 등 기존의 노선을 활용한 장거리 걷기여행길 조성을 통해 국제적인 도보여행의 명소화를 추진했다.

강진 바스락길은 총 30km로 강과 바다 그리고 산이 어우러져 경관이 아름답고 경사도 완만하여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게 구성했다.

2017년에는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차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을 공모하여 3개 시·군(화순·담양·완도)을 선정했다.

도는 2018년부터 2차 선정 시·군에 국비(지특) 20억원을 투입하여 전남을 대표한 명품길로 추가 조성하고 있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김우형

#### 마.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남도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에 구례 지리산, 무안 갯벌, 영암 월출산 기찬뿔길, 영광 오토

캠핑장 등 4개소가 선정, 국비 40억원을 지원 받아 조성을 완료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전남 관광산업 발전의 최대 현안인 숙박시설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도는 전남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집과 도시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무르면서 사람과 교류하고 자연을 느끼며 배울 수 있는 캠핑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했다.

2018년에는 화순군 등 2개 군에서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국민여가캠핑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등 갈수록 캠핑의 수요가 많아 질 것에 대비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양지훈

## 바.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전남도에는 2007년 12월에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 인증을 받은 3개(담양 창평, 완도 청산도, 신안 증도)의 슬로시티 지역이 있다.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의 그레베 인 키안티(Greve in Chianti)에서 시작된 느린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서 지역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자연환경과 전통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살리기 운동이다.

완도군은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매년 4월 개최하고 있으며,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담양군은 슬로푸드 체험프로그램, 음식문화축제 등 전통슬로푸드를 개발하여 지역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9년간 슬로시티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주민주도 공

동체 육성·발전을 꾀하고 있다.

도는 전남만의 슬로시티 생산 농수특산물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16년 8월, 슬로시티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BI)인 ‘슬로라도’를 개발하고 명함, 쇼핑백, 부착용 스티커 등 디자인 시안을 제공했다. 또한, 슬로시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2017년 1월, 슬로시티 다국어(한·중·영·일) 홍보책자 1만부를 제작하여 한국슬로시티본부 및 관광안내센터 등에 배부했다.

【 슬로라도 BI 및 디자인 활용 홍보물(쇼핑백) 시안 】



【 연도별 슬로시티 관광객 수 】

(단위 : 명)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6,430,340	957,993	1,355,972	1,348,005	1,315,404
담양 창평	533,216	46,937	163,906	209,951	170,878
완도 청산도	1,529,735	278,000	335,742	316,018	344,662
신안 증도	3,707,159	633,056	856,324	822,036	799,864
장흥 유치·장평	660,230	-	-	-	-

## 1-2.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환경 조성

### 가. 관광안내체계 구축

전남도는 지자체와 민간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총 65개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

관광안내소는 도청앞 관광정보센터, 무안국제공항안내소, 목포역종합관광안내소, 광주송정역관광안내소, 아시아문화전당내 등에 설치되어 우리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언어 불편해소 및 관광지에 대한 맞춤 해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내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오류 정비를 추진하여 현재 3,055개소(도 설치 18, 시·군 설치 3,037)를 설치 했다.

도는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정확하고 알기 쉬운 관광 정보 제공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정책팀장 김명신, 담당자 허송근

### 나.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 지원

전남도는 전통한옥을 전남 고유의 대표적인 체험숙박시설로 육성하고 있다.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전통한옥을 숙박시설로 개보수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것이다.

도는 2017년까지 순천시 등 21개 시·군에 개보수 사업비 143동 7,728백만원과 체험 프로그램 51동 1,366백만원을 투자했다.

2018년도에는 전통한옥 개보수사업은 순천시에 5동 100백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나주시 등 3개 시·군에 6동 23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양지훈

#### 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추진

전남도는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목포시 등 20개 시·군에 48개소 47억원을 투자했다.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은 도내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편리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도는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광시설 상시점검 책임관(읍면동)을 지정 운영하여 관광시설 정기 및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도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에 4억원을 투자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밝은 화장실을 제공하는 등 전남의 관광 이미지를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개발팀장 조영식, 담당자 양지훈

####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전남 도내에는 331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그중 외국어 해설사는 60명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감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시·군 추천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100시간(이론 50, 실습·현장 50) 수업을 이수하고 약 3개월의 실무수습 후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다.

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남의 문화·예술·역사를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스토리텔링 해주는 전남 관광의 선봉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년 보수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해설사보다 중국어, 영어, 일어 등 외국어 해설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외래 관광객 유치에 위해 외국어 해설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어 해설사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의 외국어 가능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을 받은 관광객의 경우 체류 시간이 늘어났으며, 재방문 의사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군의 수요를 파악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정제희

#### 마. 관광진흥기금 조성·운영

전남도는 민간의 관광숙박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관광숙박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저리로 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8개 관광숙박시설에 202억원을 지원했다.

도 관광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용자규모는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는 3억원까지다.

특히 2018년도부터는 소규모 회의,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에 위해 200㎡ 이상 회의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자범위를 확대했다.

앞으로 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2020년까지 관광진흥기금 600억원을 조성하여 관광트렌드에 맞는 숙박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정책팀장 김명신, 담당자 허송근

#### 바. 카드 하나로 통하는 남도패스 도입

전남도는 광주, 전남을 찾는 여행객에게 교통, 골프장, 맛집, 숙소, 관광지 등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남도패스' 카드를 2017년 11월에 출시했다.

남도패스 카드 개발에는 전남, 광주, IBK기업은행, 한국관광공사, (주)유비파트너스가 참여하여, 2017년 7월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현재는 충전식 선불카드 3종(10만·30만·50만)을 비롯한 기업은행 모든 카드 사용 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전국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향후 모바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할인 카드도 제공하여 타 카드 사용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도는 2018년 5월부터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행 제휴 남도패스 신용카드와 모바일 기반 제시형 카드를 출시하는 한편, 가맹점 확대와 연계 여행상품 발굴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전라도방문의해TF팀장 강창구, 담당자 고현영

#### 사.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전남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할 경우 출국장 세관에서 세금(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을 환급받는 사후면세점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사후면세점은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형 시내면세점을 대체하여 조성했다.

도내 사후면세점은 2017년 말 목포, 여수, 순천시 일원 454개소를 구축했으며 나주시 등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3개 시·군 사후면세점 특화거리에는 6억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및 와이파이존 구축, 안내도 제작을 지원했다.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특화된 쇼핑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하는 등 사후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상·지자체와 공동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정책팀장 김명신, 담당자 허송근

#### 아. 남도음식거리 조성

전남도는 KTX 개통과 무안공항 활성화 등 새로운 여건에 부응하

고 남도음식이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시·군별 대표 음식거리를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음식거리로 조성하고자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선정하는 사업이다.

남도음식거리는 면적이 2,000m<sup>2</sup>이상 또는 거리가 100m이상 되는 곳 중 거리를 대표하는 음식점(단일음식)이 6개 이상 밀집된 시·군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에는 9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해서 5개 시·군인 순천 웃장국밥거리, 광양 불고기테마거리, 곡성 압록·참계은어거리, 보성 벌교 태백산맥꼬막거리, 완도 전복명가거리를 선정했다.

2017년에는 4개 시·군이 참여해서 2개 시·군인 고흥 장어거리, 신안 섬 빨낙지거리를 선정했고 2018년 12월까지 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사업 평가방법은 음식, 관광, 디자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거리 조성 계획의 적절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메뉴 선정 등을 서면과 현장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했고, 평가점수 70점 이상 시·군 중 상위 순위로 선정했다.

음식거리에는 거리 대표 음식과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형물설치와 출입구 거리명칭 간판 설치, 대표 음식에 대한 스토리 개발, 거리 종합안내표지판 설치, 포토 존 설치 등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한, 남도음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도음식거리 대표 BI(맛도남도)를 개발·보급했다.



【 맛도남도 BI 】

도는 앞으로도 남도음식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먹거리 관광객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도만의 스토리가 있는 음식거리를 발굴하여 음식관광 인프라를 지속해서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식품의약과장 박경곤, 식품안전팀장 조용수, 담당자 김태은

### 1-3. 상생협력 관광 네트워크 구축

#### 가. 도·시군 관광협의회 설립

전남도는 관광진흥법에 '지역관광협의회'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시군 관광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자 2017년 3월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군 관광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의회, 관광공사, 관광재단, 사회단체, 관광사업자, 청년리더)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로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관광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립지원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2017년 말 현재, 목포시 등 8개 시·군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했고 담양 등 3개 시·군에서 관광협의회 구성을 완료했다.

앞으로 '도·시군 관광협의회'는 지역관광의 이해 당사자 간에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관광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관광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정책팀장 김명신, 담당자 허송근

#### 나. 지자체간 관광협력 강화

전라도 3개 시·도(광주, 전남, 전북)는 역사·문화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관광분야 공동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5년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창립했다.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는 당연직 2명(국장, 과장), 위촉직 8명(유관기관, 전문가, 관광사업 종사자)으로 시·도별 10명씩 총 30명이며, 지자체와 관광협회, 문화관광재단 등 유관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는 관광홍보 및 마케팅, 공동 관광상품 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선포식 이후 명품여행상품, 모바일 스탬프투어, 청소년문화대탐험단, 아트&버스킹 페스티벌 등 총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KTX, (주)SR 등 유관기관과 지역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수서역 전라도홍보관 운영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 【 위촉직 위원 명단 】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유관기관(3)	전 라 남 도 관 광 협 회	회 장	이한철
	전 남 문 화 관 광 재 단	사무처장	오영상
	광 주 전 남 연 구 원	책임연구위원	문창현
전문가(1)	목 포 대 학 교 관 광 경 영 학 과	교 수	김병원
종사자(4)	대 한 숙 박 업 중 앙 회 전 라 남 도 지 회	회 장	민정기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지회	회 장	송기현
	전 라 남 도 문 화 관 광 해 설 사 협 회	회 장	김채림
	순 천 시 관 광 두 레	PD	모세환

\* 위촉기간 : 2017. 6. 26. ~ 2019. 6. 25.

## 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 2-1.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

#### 가. 남도여행 으뜸상품 운영

전남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도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센티브 프로그램(남도여행 으뜸상품, 전담여행사 특수상품) 2종을 운영하고 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심사를 통해 도에서 정해진 주제에 맞게 여행사가 상품을 구성하여 응모하면 상품을 선정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공모사업이다.

남도여행 으뜸상품 공모분야는 힐링여행, 문예·종교, 남도별미, 섬, 축제·웰니스, 자전거, 체험·길 10개로 전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 중심이다.

전담여행사 특수상품은 기존 인기 관광지외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의 비교우위 관광자원의 차별화와 남도만의 독특한 여행상품인 으뜸상품을 이용해 2016년에는 11,660명, 2017년에는 12,105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았다.

2016년에는 전남 방문 관광객이 4,279만 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4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수요자 맞춤형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계속 펼칠 계획이다.

### 나.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전남도는 전남 관광지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를 2014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남도한바퀴」는 개별 여행객이 증가하고, 대중교통 접근이 취약한 도내 관광지 연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운영을 시작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티투어의 지역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용요금 9,900원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는 「남도한바퀴」는 전남의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해설이 곁들여져 관광객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탑승인원은 2016년 평균 21.7명, 2017년 평균 32명으로 2016년 대비 평균 탑승인원이 45.5% 증가하여 전남의 명품 여행상품이자 전국적인 시티투어 브랜드화로 자리매김했다.

2018년에는 젊은 세대 맞춤 여행코스를 개발,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활용한 해양관광코스,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한 전북연계 코스 등 20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절별 특성, 축제 등 이용객 수요를 반영하고, 해외개별여행객을 위한 외국인 전용 특별코스(글로벌 남도한바퀴)도 만들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여행상품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마케팅팀장 곽부영, 담당자 남가희

### 다. 수학여행 전담지도사 운영

전남도는 수학여행단 교육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지도사를 배치하고 남도의 다양한 맞춤형 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초·중·고 학생들이 관광지 견학과 체험을 통해 심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2016년도에는 20개교 3,450명이 전남을 찾았으며 초등학교 2개교 350명, 중학교 8개교 1천5백명, 고등학교 10개교 1천6백명 등이다

또한, 문화관광해설 능력과 체험학습 안전 역량까지 갖춘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지속해서 양성·운영하여 2017년도에는 68개교 13천명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전남을 방문했다.

도에서는 수학여행 전담지도사를 배치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린 남도소리, 춤 공연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 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이용진

#### 라. 이순신 리더십 캠프 운영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2015년에 처음으로 도입·운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라도 백성의 호국·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지역·역사적 장소인 울돌목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9~10월경에 전라남도와 해남군·진도군이 공동으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3일간의 축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 중의 하나인 명량대첩 승리를 기리고 홍보했다.

그러나, 명량대첩축제만으로는 울돌목의 관광상품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역사적 장소를 상시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고 이순신 리더십 캠프 운영을 시작했다.

이순신 리더십 캠프는 전문가 특강, 충무공 체험(활쏘기 등), 유적지 답사, 문화공연을 포함하여 1일, 1박 2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 결과 2015년 13회, 552명을 시작으로 2016년 57회 7,829명, 2017년 51회 7,710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선정, 국비를 확보하여 '명량! 이순신 리더십 캠프'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애국애인정신을 배우는 기획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이용진

#### 마. 해외관광객 유치 시장다변화마케팅

도는 최근 수년 동안 지나친 중국 관광객 의존과 저가 여행상품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을 수립, 추진했다.

지난, 2016년 10월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방한관광 전면금지 조치는 국내 관광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전남도를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도 60% 이상 감소했다.

우선 일본, 대만, 홍콩 및 동남아 국가별 선호도를 분석한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또한,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기업인센티브 단체가 방문했고, 수도권과 전남을 연결하는 외국개별관광객 자유투어 버스상품을 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도축제, 봄꽃·단풍여행, 미식여행, 농촌체험여행 등 지역 특

화체험도 가미해 상품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였다.

한편, 사드 여파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해외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바이럴 마케팅과 한류드라마 촬영지 연계 관광코스 홍보를 추진하여 전남관광의 매력과 인지도는 지속해서 끌어올렸다.

도에서는 2018년 해외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해외 관광객이 선호하는 맞춤형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2018 전라도방문의 해」 기념사업을 통해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의 해외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마케팅팀장 곽부영, 담당자 황경혜

#### 바.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2013년부터 무안공항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시작한 이래 2016년까지 10만명 이상이 무안공항을 통해 전남도를 방문했다.

2017년은 중국발 전세기 중단으로 전년 대비 입국 외래객의 수가 88%나 감소했다.

2018년에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해외시장다변화 정책 추진에 나선 결과 대만 전세기를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무안공항 국제 노선 다변화의 첫 신호탄을 쏘았다.

**【 연도별 무안국제공항 외국인 입국 현황 】**

(단위 : 명)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다양한 국가의 도시를 잇는 정기노선을 개설해 해외관광객을 직접 유치하고 경유지 관광의 한계를 넘어 목적지 관광으로 거듭나도록 해외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마케팅팀장 곽부영, 담당자 김영주

#### 사.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전남도는 해외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해외에서 전남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크루즈관광은 고급형 관광으로서 최근 지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에 입항한 국제 크루즈 관광객은 국제행사 및 메가이벤트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에는 메르스와 일본 엔저의 영향, 그리고 2017년에는 사드 여파로 전남의 크루즈 기항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일본 국적의 크루즈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8년에는 해수부와 공조마케팅으로 대만크루즈(스타크루즈 아쿠아리우스호) 2항차와 일본크루즈(오션드림호)와 월드크루즈(시번서전호)를 유치함으로써 전남 크루즈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도는 앞으로 국가별 맞춤형 상품개발과 팸투어 등 실효성 있는 유치전략으로 다양한 국가의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 【 연도별 국제 크루즈관광객 입국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항 차	12	18	14	1	1	2
인 원	16	47	53	1.1	3.3	1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마케팅팀장 곽부영, 담당자 김영주

## 아. 의료관광 활성화

전남도는 2015년부터 의료관광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백년로메디컬스트리트 조성, 목포의료관광협동조합 설립,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 의료관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관광 산업은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지출비용이 다른 관광보다 크다는 특성이 있으며, 취업 및 고용 유발계수가 높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수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민선6기에 들어와 지역의 의료산업, 문화관광 자원을 융합한 새로운 의료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자 의료관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에 광주·전남 공동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및 의료·뷰티·미용과 관광·휴양 등 웰니스 자원을 연계한 의료관광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비 800백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2016년부터 의료관광종합센터 운영, 의료통역 등 전문인력 양성, 상품 개발, 현지설명회 및 웹투어 등 홍보·마케팅,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운영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자원과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경쟁력과 잠재력이 높은 전남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보건의료과장 이순석, 의료관리팀장 김영두, 담당자 손성일

#### 자. 차별화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전남도는 매력적인 관광지를 국내·외에 소개하고 관광객의 호기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중매체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물 제작, 홍보관 운영 등 지역별·연령별 타깃을 설정하여 활발하게 홍보했다.

또한, 공식 SNS와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 포털사이트와 모바일 광고를 진행해 젊은 층에게 매력적인 전남 관광자원을 알렸다.

수도권 대형전광판, 기차역·버스·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 홍보도 진행했다.

시기별·타깃별로 적합한 매체를 선정하여 국제행사, 남도대표축제, 계절별 전남 관광자원을 적시에 홍보함으로써 관광정보 전달 및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중국, 동남아, 일본 등 해외 현지 마케팅으로 전남이 가진 관광자원을 현지 관광객 수요에 맞춰 홍보하고, 우수상품을 온라인

여행사에 출시하는 등 전남 관광상품화에 노력했다.

2017년에는 한류드라마 촬영지 관광상품화, B2C 장터운영, 음식체험, 공연, 현지인대상 체험행사 개최, 전라도 체험선발대 선발 등 이벤트를 통한 홍보도 다양하게 진행했다.

앞으로 차별화 된 전남관광 홍보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반응형 웹, 위치 기반 관광정보, 맞춤형 여행코스 등 관광객 필요를 충족하는 스마트관광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마케팅팀장 곽부영, 담당자 김양중**

#### 차.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 산업 육성

전남도는 대규모 컨벤션 및 국제회의 시설은 없으나 우수한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MICE)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마이스산업은 Meetings(회의), Incentives Travel(포상여행), Conventions(컨벤션), Exhibitions/Events(전시/이벤트)를 관광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도에서는 마이스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해 「전라남도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12. 7. 27. 제정)」 제정과 「제1차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했다.

또한, 지역 마이스 업계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참가단체 협력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위해 2016년 전라남도 마이스 얼라이언스를 구성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전라남도 마이스 상품 개발 용역」을 통해 전

략적인 마이스 상품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마이스 개최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마이스 수요를 지역으로 끌어들이었다.

2017년도 도내 마이스 유치는 3,459건 1,120천명(15년 대비 17%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마이스산업은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여러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MICE 참가자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일반 관광객의 3.1배, 체류기간은 1.4배에 달한다. (출처 : 한국관광공사)

도는 MICE 산업이 고부가가치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입소문을 통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및 사회 주도층이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므로 지역 이미지 제고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김준영

## 2-2. 지역축제 운영의 내실화 추진

### 가. 시·군 축제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전남도 22개 시·군은 16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시·군 축제는 시기별로 봄(3~5월)에는 43개, 여름(6~8월)에는 14개, 가을(9~11월)에는 43개, 겨울(12~2월)에는 5개이다.

도는 지역축제 중에서 2일 이상 개최되는 105개 축제를 지정 관리하여, 1시·군 1대표 축제 지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문화관광축제에는 강진 청자축제와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담양 대나무축제가 최우수축제에 선정되었고, 정남진 장흥물축제, 보성다향대축제가 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또한, 목포 항구축제와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전국 41개 축제 중 7개로 최다 선정되어, 국비 980백만원을 지원받았다.

도에서는 도 대표축제로 함평나비대축제, 순천푸드&아트페스티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장성황룡강노란꽃잔치, 곡성세계장미축제, 구례 산수유꽃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를 선정하여 100백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지역축제 통폐합을 통한 축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06년부터 8개 시·군, 11개 축제를 유사 중복 축제로 통폐합했다.

한편,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강진 청자축제와 정남진장흥 물축제 그리고 고흥우주항공축제가 공동 협력을 추진해 홍보비 예산을 140백만원을 절감했다.

앞으로 도는 축제를 통하여 주민소득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득연계를 위해 점진적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 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이용진

#### 나.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

전남도는 남도음식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1994년부터 남도음식큰잔치를 24회째 개최하고 있다.

2014년부터 3년 주기로 시·군 순회 개최로 변경하여 순천시와 담양군에 이어 2017년부터 강진군에서 개최하고 있다.

2017년 남도음식 큰잔치는 ‘강진만 갈대숲으로 떠나는 남도음식 피크닉’이라는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렸다.

남도음식큰잔치는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2대 축제로써 도내 시장·군수 및 도민, 남도음식명인 등이 참여하여 남도음식의 우수성을 알렸다.

축제장에 설치한 남도음식전시관에는 주제관, 명인관, 시·군관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상달제 및 진설행렬을 시작으로 남도음식명인 음식시연 및 시식체험, 강진만 갈대숲 1000인 오찬, 어린이체험관, 남도음식피크닉홀 등 다채로운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시음식, 일반부, 고등부, 대학부 남도음식 경연 대회, 단품요리 대회 등 세대별, 주제별 다양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남도음식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도는 (재)남도음식문화큰잔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여 축제 뿐만

아니라 남도음식의 산업화 등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김준영**

#### 다. 명량대첩축제 개최

전남도는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고, 이순신 장군과 전라도 백성들의 구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이 공동으로 ‘명량대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명량대첩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이란 슬로건으로 울돌목이 위치한 해남군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 녹진관광지 일원에서 명량대첩의 승전 기념일을 전후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개최하고 있다.

축제의 주요프로그램은 해전재현, 출정식 퍼레이드, 만가행진, 평화의 헌화, 씻김굿 등 역사성과 교훈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 구성했다.

또한, 민·관·군이 협력하여 축제를 운영하고, 2,000여명의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단체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현대적 계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도에는 61척의 실제 선박을 활용한 해전재현에 바쁜 어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남과 진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도에서는 명량대첩축제를 역사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우수 콘텐츠 발굴을 통하여 축

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관광과장 유영관, 관광산업팀장 이석호, 담당자 이용진

### 3.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

#### 3-1. 도민의 문화 향유기반 확대

##### 가.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전남도는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향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립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말 현재 문예회관 24개소, 박물관 36개소, 미술관 7개소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2018년에는 문예회관 1개소, 공공도서관 4개관을 건립 중이다.

\* 사립시설 포함한 수 : 문예회관 26, 박물관 60, 미술관 28개소

한편, 장기간에 걸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재정부담이 따르는 공립문화시설 건립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 건립중인 공립문화기반시설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사업기간	규 모 (연면적)	총사업비	추진상황	
				공정	준공
신안 문화예술회관	2018~2020	지상 3층 (1,717㎡)	5,756 (국 2,000 군 3,756)	설계중	(2020년 3월 개관예정)
여수 이순신 도서관	2017~2019	지하 1층, 지상 4층 (5,768㎡)	15,760 (국 5,700 시 10,060)	공사중	(2019년 7월 개관예정)
구례 공공도서관	2017~2018	지하 1층, 지상 2층 (1,200㎡)	3,200 (국 1,600 군 1,600)	설계중	(2019년 8월 개관예정)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정책팀장 박용학, 담당자 김대희

## 나. 문화특화지역 조성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지역 역사·문화·관광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 및 마을 자체가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을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위주의 지원을 통해 상향식 지역문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5년 여수 밤바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전남도내 7개소(문화도시 5개소, 문화마을 2개소)로 확대됐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1개 도시 당 국비 연 3억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5년간, 문화마을 사업은 1개 마을당 국비 연 0.8억원 내외(지방비 60% 매칭) 3년간 지원하고 있다.

### 【 2017년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지원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번	시 군	지원규모		사업비		비 고
		문화도시	문화마을	국 비	지방비	
합 계		5	2	2,720	4,080	
1	여수시	1	1	1,140	1,710	2015년 ~ 2019년
2	순천시	1	-	-	-	2018년 ~ 2022년
3	나주시	1	-	600	900	2016년 ~ 2020년
4	광양시	1	-	300	450	2017년 ~ 2021년
5	담양군	1	-	600	900	2016년 ~ 2020년

#### 다. 작은영화관 조성

전남도는 2014년부터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화관이 없는 시·군에 소규모의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10억원 내외이며 2개관, 100석 이내의 소규모 상설 영화관을 조성하고 있다.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다.

3D상영관 등 대도시 영화관에 뒤지지 않는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며 관람료는 시중 영화관의 60% 수준이다. 전국 동시 개봉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

2015년 10월 장흥 ‘정남진 시네마’가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2016년 2월 ‘고흥 작은영화관’이 들어섰다. 2017년에는 진도 ‘아리랑 시네마’(7월), 완도 ‘빙그레 시네마’(9월), ‘곡성 작은영화관’(12월)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2018년 ‘화순시네마’(2월)까지 개관해 총 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17년 말까지 누적 관람객은 정남진 시네마가 16만명, 고흥 작은영화관은 12만명을 돌파했다.

1980~1990년대에 영화관이 문을 닫은 농어촌 지역에 새롭게 문을 연 영화관이 지역민들의 문화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문화공간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작은영화관은 운영 초기 우려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장학금 기부 등 수익금의 사회 환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도내에서 영화관이 있는 시·군은 2013년 목포, 여수, 순천 등 3곳 뿐이었으나, 2018년 4월말 현재 12개 시·군으로 늘었다.

전남도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도 영화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작은영화관 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 작은영화관 1호점 장흥 정남진시네마 】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문화산업팀장 김형수, 담당자 김형호

## 라.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전남도는 2014년부터 작은영화관조차 들어갈 수 없는 섬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신 영화를 무료로 상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문화향유 혜택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4년 시범운영에 이어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연 40회, 5,000여명의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복지회관과 학교 강당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포함한 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175회 운영했으며 총 27,410명의 도민이 관람했다.

2018년에는 도립국악단, 자원봉사 기관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 미용 봉사, 건강검진, 영정사진 촬영 등 문화나눔 행사와 영화 상영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민에게 영화를 통한 문화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현황 】

(단위 : 개/ 회/ 명)

연도	참여시군	개최횟수	관람인원	비고
2014	14	28	7,080	시범운영
2015	14	76	8,645	
2016	14	33	6,263	
2017	17	38	5,422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문화산업팀장 김형수, 담당자 김형호

마. 1읍면 1도서관 조성

전남도는 도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1읍면 1도서관 조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 및 시·군에서 운영하는 46개 도서관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21개 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67개의 공공도서관과 248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한편, 22개 시·군 229개 읍면 중에 도서관이 없는 읍면은 41개 읍면으로 매년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 조성을 통해 1읍면 1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농간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역사인문팀장 최주오, 담당자 이현솔

## 바. 도립미술관 건립

전남도는 예향전남의 위상에 걸맞은 미술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전남 동부권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광양시에 전남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6월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여수시 등 동부지역의 6개 시·군의 미술관 건립 유치 제안서를 접수했고 심사를 통해 7월에 도립미술관 건립 위치를 광양시로 선정했다.

또한, 미술관 건립 기본용역,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행정자치부 중앙투자 심사를 마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미술관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2016년 4월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완료하여 국비 160억원을 확보했다. 국제공모를 통해 서울의 에스아이건축사와 광주의 디아이지건축사 사무소의 공동작품을 선정했다.

2017년에는 도립미술관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했다. 설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립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설계용역사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연면적 11,580㎡, 지하1층 지상3층의 도립미술관 설계를 완료했다.

2018년 3월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5월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 입찰공고 중이다. 도정의 주요 현안 과제이며 도민의 오랜 숙원인 도립미술관 건립은 2018년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정의 주요 현안 과제이며 도민의 오랜 숙원인 도립미술관 건립

은 2018년 4월에 착공하여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립미술관은 지역 미술의 거점으로써 국·내외 미술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술인과 예술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전남 문화 예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여수바람회장 및 순천만국제정원 등 전남 동부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다.

【 전남도립미술관 조감도 】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미술관TF팀장 김형수, 담당자 이태우

사.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운영

전남도는 지역 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우수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도소리올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남도 전통국악의 전승·발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남도립국악단의 상주공간을 위해 2015년 5월 30일 개관했다.

남도소리올림터는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236억원의 사업비로 연

면적 5,1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558석의 관람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습실, 분장실, 의상·소품실과 예술 전문극장으로 무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공연환경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남도립국악단의 토요일공연(매주 토요일 오후5시)과 다양한 예술분야의 수준 높은 기획·초청공연이 진행되며 전문 예술인과 단체를 위한 대관사업을 운영했다.

또한,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국악강좌를 열어 우리 고유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다.

개관이후 2017년 12월말까지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 외에 대관공연(48회, 18,789명 관람)과 기획·초청공연(48회, 11,338명 관람)을 실시했으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강좌(2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앞으로 남도소리올림터는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견인역할과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공연이 남도 관광의 명소가 되어 명실상부한 한국 전통예술의 중심이 되도록 기여할 것이다.

【 남도소리올림터 외·내부 】



### 아.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전남도는 원불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여 원불교 영산성지 인근인 영광군 백수읍 구수리 산99-1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 29,563.5㎡, 건축연면적 6,797㎡)의 국제마음훈련원을 176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에 착공하여 2016년 4월 7일 준공·개관했다.

국제마음훈련원은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59개 객실과 식당, 명상센터인 선실, 마음쉼터, 강당, 회화실 등을 갖추고 있다.

국제마음훈련원 개관으로 국내외 명상산업을 주도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천주교 평신도 봉사단체인 레지오마리아(1953년 헨리 신부의 주선으로 한국 최초로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시작)가 처음 시작된 목포 산정동 90-1번지, (구)카톨릭병원 자리에 레지오마리아 나눔봉사기념관을 180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4월에 착공하여 2017년 9월 30일 준공·개관했다.

나눔봉사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8,153㎡의 규모로 최대 2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69개의 숙소, 강당과 세미나실, 나눔관, 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 최초의 천주교 평신도 봉사단체의 역사적 가치를 부가하여 천주교 성지화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정책팀장 박용학, 담당자 채종욱

## 3-2.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산업 육성

### 가. 문화예술 교육 지원

####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학교예술(국악)강사 지원사업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소양,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 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 예술(국악)강사를 파견하여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등 프로그램운영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전남도, 전라남도교육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협의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한국국악협회전남도지회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45명의 예술강사가 1,001개 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 및 예술적 경험을 증대했고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과 병행 가능한 일자 창출에 기여했다.

#### 【 예술강사 지원사업 추진실적 】

(단위 : 개교,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계획)
학교 수	335	347	319	325

## 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예술캠프는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7년 전남도 서민배려시책으로 처음 추진했다.

지역 내 예술인 20명이 2박 3일간, 장흥과 무안에서 2회 진행된 캠프에 장애인 가족, 섬 지역 초등학생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제공하고 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은 2012년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라 매주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및 가족들의 건전한 주말 여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

또한, 도서지역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움직이는 예술학교’ 민선6기 브랜드시책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감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섬thing캠프’를 추진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대상 ‘꿈사다리 예술학교’ 농업 콘텐츠를 활용한 가족형 ‘주말예술농장’ 프로그램 등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 기획사업 추진 등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 【 연도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건, 개)

연도	수혜인원	지원금액	프로그램 수	운영단체 수
계	7,574	3,158	175	169
2014	1,276	455	26	26
2015	1,346	455	28	28
2016	1,616	735	43	39
2017	1,636	683	42	40

## 3)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자체 협력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사업’으로 시작했다.

2010년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12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2012년부터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운영 역량을 갖춘 단체, 기관, 시설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운영단체 선정절차는 서류 평가, 현장점검, 인터뷰 심의로 진행되며, 선정된 단체의 행정 및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해 수행단체 대표자 간담회, 전문가 현장평가, 평가워크숍, 공동성과발표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도민의 다양한 일상 속 문화향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 【 연도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운영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개)

연도	수혜인원	지원금	운영단체수
계	1,826	1,210	100
2014	340	242	17
2015	350	242	21
2016	360	242	16
2017	386	242	21

### 나. 남도 문학벨트 조성

전남도는 도내에 산재하여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학자원을 상호 연결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문학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남도 문학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에는 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남도 문학벨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도의 문학 진흥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남도로 떠나는 문학기행’ 책자를 제작하여 도내 분산되어 있는 문학자원을 자료화하고, 문학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천만원씩 총8천만원을 지원하여 문학활동의 다변화를 유도했다.

2018년에는 문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문학관등록심의회를 구성하여 도내 공립문학관 11개소 중 현장심의를 거쳐 8개소를 문학관 등록했다. 또한 도내 문학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소외된 문학 분야에 창작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차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정책팀장 박용학, 담당자 김수기

### 다. 전남 민속예술축제 개최

올해 43회째를 맞은 전남민속예술축제는 남도의 전통 민속예술 발굴·전승에 초점을 맞추고, 멋과 흥이 어우러진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문화 축제로 1966년 ‘남도문화제’로 시작하여 2009년부터 ‘전남민속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됐다.

2017년도에는 10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남 강진 국민체육센터에서 각 시·군 대표 34개팀(일반 21, 청소년 13)이 참가했다.

민속놀이, 농악, 민요 등의 경연을 펼쳤으며 일반부에서는 보성군 울어 밤골마당뽕이팀이 청소년부에서는 완도군 청해진12군고 진법놀이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2017년 전남민속예술축제 일반부와 청소년 대상팀은 2018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제25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전남도를 대표해 참가하게 된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예술진흥팀장 정혜정, 담당자 김신희

#### 라. 남도 역사이야기 및 역사소설 도 누리집 연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도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전남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적 등을 소재로 2015년부터 남도 역사이야기 및 역사소설을 도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후 노량해전에서 최후를 맞이까지의 여정을 그린(157회) 정찬주 작가의 「이순신의 7년」을 연재하여 이순신 장군과 그 당시 호남인의 애국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켰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매주 수요일 전남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적 등을 소재로 최혁 작가의 「전남 역사이야기」를 연재하고 운영하고 있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전남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 유적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도민의 역사의식 함양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노력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역사인문팀장 최주오, 담당자 성정훈

#### 마. 도내 설화 발굴

지역사회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는 지역 설화를 보존하고 문화 자원화하고자 설화 발굴 용역을 추진했다.

전남의 삶과 문화, 정서가 숨 쉬는 설화를 조사하여, 보존 및 전승 가치가 높은 설화를 기록으로 보존하고, 최종적으로 스토리 창작 및 각종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8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의 신화, 전설, 민담, 우화 등을 대상으로 1,664개 마을을 조사하여 9,754건의 설화를 발굴했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문화산업팀장 김형수, 담당자 김형호

#### 바. 전남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건립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예산 399억원을 투자하여 '실감 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을 추진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기관,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기관으로 진행했다.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국립전파연구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999㎡,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6년 10월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는 실감콘텐츠 제작, 제품테스트, 품질인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품 테스트실, 품질인증·시험실, 교

육실 등을 구축하여 실감미디어 기업과 관련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산학연 연계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VR, AR 등 융복합 콘텐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빛가람 혁신도시 내에 총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전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 중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문화산업팀장 김형수, 담당자 이용우

#### 사. 문화·관광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로 문화산업을 키우고 있다. 2016년 발굴한 고흥, 보성, 장흥군 설화를 이용해 동화책 및 e-book 개발, 스탬프 투어 개발, 웹툰을 제작했다.

조선말 남계우 화백의 '화집도'를 기반으로 수목화를 주제로 한 VR콘텐츠를 개발하고, 2017년 국제수목프레비엔날레 기간 관람객들에게 콘텐츠를 선보였다. 2018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는 보다 나은 체험형 콘텐츠를 전시할 계획이다.

시·군 전시관·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하고 체험형 전시공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목포시 자연사박물관에 AR-VR 전환 가능한 몰입형 체험 전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진도군 진도타워에는 AR기반 명량대첩 전시콘텐츠를 제작, 전시하고 있다. 영광군 칠산타워에는 가상 관광체험 VR시뮬레이션 콘텐츠를 보급해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 별서정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

발해 관람객 유치, 지역 관광 인프라 조성에 힘을 보태고, 콘텐츠산업 육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문화산업팀장 김형수, 담당자 이용우

### 3-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네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유형문화재 : 건조물(절집, 석탑)·전적(옛날 책)·고문서(옛날의 관청이나 개인 문서)·회화(그림)·조각(불상)·공예품 등
- ②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민속놀이 등 전통생활 속에서 전래 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
- ③ 기념물 : 고인돌·패총(조개무지)·고분(옛 무덤)·성곽(성터)·동물·식물·화석·동굴·지질 등
- ④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

지정권자에 따라 분류하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와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자료를 구분 없이 지정)가 있다.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두 종류를 합해 보통 ‘지방문화재’라 한다. 지정문화재 아래 단계에는 등록문화재가 있으며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유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하여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는 세계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류무형유산, 기록유산에 대해서는 세계기록유산등재를 하고 있다.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매장문화재(토지, 해저, 건조물, 지질 포장

문화재)와 일반 동산문화재도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재팀장 권광일, 문화재전문위원 김희태

#### 가. 한국학 호남진흥원 설립

그동안 호남지역에 다량 산재한 고서, 고문서, 서화 등 한국학 자료들이 훼손·망실·도난 등 소멸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전담 관리할 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은 2014년 10월에 광주전남 상생협력사업으로 채택하여 2016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5월에 행정자치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출연기관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2017년 6월에 조례를 제정, 9월 법인설립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초대 원장을 선임했다.

2018년부터 민간에 방치되고 소실 우려가 있는 한국학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수집·보존하여 멸실·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조사, 연구를 통해 호남의 한국학 관련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역사인문팀장 최주오, 담당자 이현술

#### 나.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문화재의 보수·정비는 인류가 이룩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전남도에서는 총 1,219점의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 1) 전국 4위의 지정문화재

문화재 가치를 검토하여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 전남도 문화재위원 등 관계전문가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임에도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적극 발굴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고, 도지정문화재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년 말 현재 1,219점(국가지정 462, 도지정 757)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지정문화재 수량으로 전국 4위로,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후손에게 전승·보전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남도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 국가·도지정 문화재 지정현황 】

(단위 : 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027	1,045	1,071	1,088	1,096	1,108	1,109	1,124	1,213	1,219
국가지정	332	335	348	356	366	369	374	377	461	462
도 지 정	695	710	723	732	730	739	735	747	752	757

## 2) 문화재 보존사업 추진

매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학술조사 및 고증을 통한 원형복원과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2건, 도지정문화재 169건, 총사업비 494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문화재 모니터링 및 일상 관리를 통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미한 훼손은 신속히 복구하는 등 문화유산을 사전

에 점검하고 보수하는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670개소 실시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했다.

【 문화재 보존관리사업 투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0	753	369	561	407	638	417	503	421	494
국가지정	271	654	223	459	232	536	252	403	252	401
도 지 정	139	99	146	102	175	102	165	100	169	93

추진부서 ● 문화예술과장 정석호, 문화재팀장 권광일, 담당자 김현경

다.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무형문화재는 연극·무용·음악·공예기술·민속놀이와 의식 등 역사상·예술상·학술상 그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무형문화재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와 도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전라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는 진도의 셋김굿 등 17종에 18명의 보유자가 있으며,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여수의 거문도 뱃노래 등 50종에 보유자는 46명으로 총 67종에 64명의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현재 15개 시·군, 22개소의 전수교육관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인과 함께하는 교육·공연·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7

년까지 곡성 죽동농악 등 16종을 DVD로 제작하여 전국 행정기관 및 문화재 관련단체 등에 보급했다.

앞으로도 전남도에서는 단절위기에 놓여있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영상 기록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현황 】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보유자(조교)	종별	소재지
8	강강술래	1966. 2.15.	박양애	창	해남군 문내면
			박용순	"	진도군 군내면
			김종심	"	진도군 진도읍
			박종숙	"	진도군 진도읍
			차영순	"	해남군 문내면
11-6	구례 잔수농악	2010.10.21.	보존회		구례군 구례읍
28	나주셋골나이	1969. 7. 4.		무명짜기	나주시 다시면
31	낙죽장	1969.11.29.	김기찬	낙죽	순천시 송광면
32	곡성 돌실나이	1970. 7. 2.			곡성군
51	남도들노래	1973.11. 5.	박동매	창	진도군 지산면
			이영자	"	진도군 진도읍
53	채상장	1975. 1.29.	서신정	채상	담양군 담양읍
60	장도장	1978. 2.23.	박종군	장도	광양시 광양읍
			한상봉	낙죽장도	곡성군 목사동면
72	진도씻김굿	1980. 1.17.	박병원	악사	" 진도읍
81	진도다시래기	1985. 2. 1.	강준섭	거사	진도군 진도읍
				사당	" 임회면
83	구례향제줄풍류	1985. 9. 1.	이철호	단소	구례군 구례읍
91	제와장	1988. 9. 1.		제와	장흥군
96	옹기장	1990. 5. 8.	정윤석	채바퀴타래기법	강진군 칠량면
99	소반장	2014. 9.16.	김춘식	소반	나주시 죽림동

【 도지정 무형문화재 】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보유자	종별	소재지
1	거문도 뱃노래	1972. 1.29.	정경용	선소리	여수시 삼산면
5	남도 노동요	1977.10.20.		선소리	
6	화순 한천농악	1979. 8. 3.			화순군
7	현천 소동패놀이	1982.10.15.	정홍수	예능	여수시 소라면
12	광양 궁시장	1986. 9.29.	김기	기능	광양시 광양읍
14	나주반장	1986.11.13.			나주시
15	참빗장	"	고행주	기능	담양군 담양읍
17	우도농악	1987. 8.25.	김동언	설장고	담양군 봉산면
		"	문한준	상쇠	영광군 영광읍
18	진도북놀이	"		예능	진도군 지산면
		"	박강열	예능	" 지산면
19	진도만가	"	이희춘	예능	" 의신면
		"	김기선	만가	" 지산면
		"	오주창	만가	" 지산면
20	우수영 부녀농요	1988.12.21.	이인자	예능	해남군 문내면
21	장산도 들노래	"	강부자	예능	신안군 장산면
22	가거도 멀치잡이노래	"	김창대	셋소리	" 흑산면
23	담양 죽령장	1990. 2.24.	박성춘	기능	담양군 봉산면
24	송천 달집태우기	1994. 1.30.	김재철	세시놀이	순천시 월등면
25	해남 진양주	"	최옥림	민속주	해남군 계곡면
26	진도 전통흥주	1994.12. 5.			진도군
27	고흥월포농악	"			고흥군
28	완도장자리당제와당굿	1995.12.26.	강양대		완도군 완도읍
29	판소리	1996.10.24.	김향순	동편제흥보가	여수시 미평동
		"	김순자	"	목포시 용당동
		"	박방금	동편제수궁가	목포시 산정동
		"	추정남	판소리고법	해남군 해남읍
		"	안부덕	동편제 춘향가	목포시 석현동
30	고흥한적들노래	1996.10.14.	박반심	1인창무극 심청가	영광군
				설소리	고흥군 도덕면

제2장 부문별 성과

지정번호	문화재명	지정일	보유자	종별	소재지
35	곡성 죽동농악	2002. 4.20.	박대업	상쇠	곡성군 곡성읍
36	청자장	2004. 2.13.	이용희	청자제작	강진군 대구면
37	용기장	2013.12.19.	이학수	채바퀴타래기법	보성군 미력면
38	강진 신전들노래	2005.12.27.		들노래	강진군 신전면
39	진도 소포걸군농악	2005.12.27.	김내식	설북	진도군 지산면
				설농기	진도군 지산면
40	조도 닳배노래	2006.12.27.	조오환	풍장	진도군 의신면
41	무안 상동 들노래	"	고윤석	들노래	무안군 무안읍
42	전남의례음식장	2008. 4.11.		의례음식	전남 일원
	장식음식	"		장식음식	무안군 현경면
43	순천 삼설양국	2008.12.26.		전통국	순천시 대룡동
44	낙죽장	2009. 3.20.	조운창	낙죽	담양군 담양읍
		2009. 3.20.	이형진	"	담양군 봉산면
45	보성 강하주	2009. 7. 3.			보성군
46	담양 황금들노래	2009.12.31.	남귀희	선소리 들노래	담양군 수북면
47	가야금 산조	2010. 5.27.	선영숙	김병호류가야금산조	화순군 이서면
48-1	담양 선자장	2010. 5.27.	김대석	접선장	담양군 담양읍
49	악기장	2011. 9.20.		장구제작	장성군 장성읍
50	조선장	2013. 8. 5.	조일옥	전통한선 제작	신안군 흑산면
		"	심정후	"	목포시 서산동
		"	마광남	"	완도군 완도읍
51	화순도장리밭노래	"	김금순	밭노래	화순군 도암면
52	신안 씻김굿	"		씻김굿	신안 일원
	장산도 씻김굿	"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	진금순	씻김굿	신안군 장산면
	비금도 씻김굿	"	유점자	씻김굿	신안군 비금면
53	영암 갈곡들노래	2013. 8. 5.	보존회	들노래	영암군 신북면
54	화순 우봉들노래	2013. 8. 5.	보존회	들노래	화순군 춘양면
55	초고장	2013.12.19.	임채지	짚풀공예	곡성군 오곡면
56	목조각장	2013.12.19.	김규석	다식판, 떡살제작	담양군 대전면
57	광양 진월 전어잡이소리	2013.12.19.	보존회	전어잡이소리	광양시 진월면
58	고흥 훈맞이굿	2015. 8. 6.	김명례	훈맞이굿	고흥군 도화면

## 라.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남도는 수려한 자연자원과 찬란한 문화유산을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 문화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주민 자긍심 제고에 노력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등재 추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72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2017년까지 165개국 1,052개소가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는 각국의 국가대표격인 잠정등록 목록도 171개국 1,631개소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세계유산 12건, 잠정목록 16건으로 이 중에서 전남은 세계유산 1건, 잠정목록 8건이다.

전남의 세계유산은 2000년에 등재된 ‘화순 고인돌유적’이 있다.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이라는 명칭으로 세 곳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는데, 선사시대 고인돌유적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의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8개소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전국 16개소 가운데 50%에 이른다.

자연유산은 남해안 일대 공룡화석지, 서남해안 갯벌이며, 문화유산은 강진 고려청자 요지, 염전, 낙안읍성,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 한국의 전통산사(순천의 선암사, 해남의 대흥사),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등이 있다.

서남해안 갯벌은 2010년 잠정목록에 올랐고 2011년 9월에는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 자문과 평가를 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자문을 거쳤다.

여러 차례의 국내외 전문가 포럼, 국제 비교연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구성 및 학술연구 등을 통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년 1월에 제출했다.

한국의 서원은 장성의 필암서원이 등재 대상이다. 조선시대 교육 기관으로서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 온 선비정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구성되어 국제학술대회, 워크숍, 학술조사를 거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8년 1월에 제출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전국 7개 산사를 대상으로 추진 중으로 전남도는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가 대상이다.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구성되어 학술회의, 조사연구 등이 진행되어 2017년에 신청서를 제출, 국제전문기구(ICOMOS) 실사를 마쳤다.

강진 고려청자 요지는 고려시대 청자가마 대부분이 분포된 지역으로 1994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래 청자박물관 개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2012년에는 발굴조사와 함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염전은 신안과 영광 천일염전을 대상으로 2010년에 잠정목록에 올라 학술조사와 비교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 낙안읍성은 조선시대 행정중심지인 읍치(邑治)이자 중세의 역사 도시로서 500년의 지속성을 지닌 정주 공간으로 가치가 뛰어나, 2012년에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국제학술대회, 민속 조사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잠정목록 등재가 논의되고 있는 유산으로는 지리산 역사종교경관, 담양 누정제영 원림 등이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세계 유네스코 등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4.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

### 4-1. 체육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

#### 가. 전국대회 출전 및 실업팀 창단

전남도는 2016년 2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두 단체가 25년 만에 통합을 이뤄내 체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전남체육발전과 건강한 전남을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하위 성적에 머물러 있던 것을 부단한 노력을 통해 2017년 2월 개최된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 5, 은 6, 동 3개 등 14개의 메달로 종합 9위 달성했다.

5월에 개최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도교육청과 혼연일체가 되어 메달 99개(금 40, 은 28, 동 31)를 획득하여 역대 최고의 성적인 종합 3위를 달성했다.

10월에 개최된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금 47, 은 55, 동 68개 등 170개 메달과 30,738점(종합 13위) 획득으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과 '성취상'을 수상하여 전남체육 경기력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연계육성 방안의 염원인 학교팀 및 직장팀 창단의 성과를 이뤄냈다.

## 【 경기력 향상을 위한 팀 창단 및 연고팀 유치 현황 】

연 번	내 용	창단 및 유치일
1	한전 럭비팀 연고지 이전	2016. 6.
2	한국가스공사 여자 태권도팀 연고 유치	2017. 3.
3	전남체고 자전거팀 창단	2017. 4.
4	화순제일중 남자 스키팀 창단	2017. 12.
5	순천시청 여자 유도팀 창단	2017. 12.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체육정책팀장 심우천, 담당자 김종원

## 나.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

전남도는 200만 도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생활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도/시·군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서울·경북과의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광역단체 간 우호증진 및 영·호남 상생협력에도 노력했으며, 생활체육지도자(일반/어르신), 공공 스포츠클럽, 스포츠복지 증진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한편, 道 장애인체육은 2016년 리우패럴림픽 에서 선수전원(사격 이윤리 동1, 유도 서하나 동1, 보치아 유원중 동1)이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2017년 9월에는 거동불편 장애인체육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장애인특장버스를 도입했다.

2018년 1월에는 장애인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실업팀(4팀 26명 / 론볼, 골볼, 축구, 배구)」이 창단되어 도 장애인체육의 제2의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

【 생활체육 주요행사 개최 현황 】

행 사 명	추진시기	장 소	추진실적
전남생활체육대축전	11.3.~11.5.	순천시	22시·군 / 20천명
도지사기(배) 생활체육대회	연중	도내일원	20개대회 / 17,210명
종목별 동호인대회	연중	도내일원	37종목 / 21,600명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9.~4.10.	무안군	12종목 / 1,800명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14.~5.17.	제주도	36개종목 / 1,200명
전남-서울 생활체육교류	참가 5.13.~5.14. 초청 11.2.~11.4.	서울 일원 순천시	4개종목 / 65명 4개종목 / 65명
전남-경북 생활체육교류	참가 6.19.~6.21. 초청 4.3.~4.5.	경북 안동 순천시	5개종목 / 70명 5개종목 / 70명

【 도내 공공 스포츠클럽 현황 】

연도	지역 및 클럽명		개소수
2015	중소도시형	전남 영암군 세한스포츠클럽	1개
2016	중소도시형	전남 곡성군 곡성스포츠클럽 전남 나주시 나주시스포츠클럽	2개
2017	대도시형	전남 순천시 스포츠클럽	1개
	중소도시형	전남 광양시 스포츠클럽	1개
	대도시형	전남 여수시 스포츠클럽	1개
2018	중소도시형	전남 강진군 스포츠클럽 전남 진도군 스포츠클럽 전남 영광군 스포츠클럽	3개

【 우리 道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현황 】

(단위 : 천원, 명)

연도	사 업 비				수 혜 연 인원
	계	기 금	도 비	시·군비	
2014	1,080,240	734,929	94,491	250,820	15,415
2015	1,105,440	773,808	99,490	232,142	15,673
2016	1,180,418	826,290	99,027	255,101	15,700
2017	1,512,197	1,058,615	136,110	317,472	16,000

#### 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전남도는 축구, 농구 등 인기종목보다는 저비용으로 성적향상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방침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했다.

1978년 체조팀(남·여 일반, 10명), 1979년 펜싱팀(여자일반, 13명), 1998년 근대5종팀(남자일반, 2명), 1998년 정구팀(여자일반, 10명)을 창단했다.

2016년에 체조팀을 해체하고 근대5종팀(여자일반), 카누팀(남·여 일반)으로 대체 창단하여 2018년 3월 현재 4종목(펜싱, 정구, 근대5종, 카누) 6개팀(35명)을 운영했다.

전남도 직장운동경기부는 2017년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펜싱 개인전 금메달 1개, 단체전 동메달 2개, 정구 단체전 동메달 1개, 카누 단체전 동메달 1개를 획득하여 전남의 전국체전 순위 향상에 기여했다.

앞으로 지속해서 우수선수를 육성 및 발굴하여 전국체전 상위입상에 기여하여 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체육정책팀장 심우천, 담당자 이정국

#### 라. 공공체육시설 확충

전남도는 도민들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확보하여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이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되는 본래적 기능은 물론, 지역, 사회, 문화 활동 공간으로 손쉽게

이용되어, 스포츠복지서비스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내 22개 시·군에 1개소씩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15년 건립을 결정한 여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체육활동에 차별을 해소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국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백만원)

건립년도	개 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계	23개소	169,758	73,400	96,361
2014 이전	16개소	107,909	49,200	58,712
2014 ~ 2018	7개소 (완공 6, 건립중 1)	61,849	24,200	37,649

또한, 지자체의 체육시설 건립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운동장생활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실적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개소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2개 유형	51개소	42,195	21,402	20,793
운동장생활체육시설	42개소	21,803	14,700	7,103

한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유·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 등을 지원하여, 유·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순천 유소년축구전용구장은 2018년 8월 완공예정이며, 순천 유·청소년다목적수영장은 2019년 8월 완공할 예정으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체육시설팀장 김백중, 담당자 윤영삼

## 4.2. 스포츠 마케팅 강화

### 가. 동·하계 전지 훈련팀 유치

전남도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먹거리, 최적의 스포츠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동·하계 전지훈련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시·군에 있는 운동장, 체육관 등의 공공 체육시설 정비 및 부대시설 확충,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했다.

운동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후조건이 좋고 훈련 경비도 저렴한 전라남도가 전지훈련 최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체육회와 합동으로 전지훈련 유치 전략 종목에 대한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재방문율이 매우 높아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전지훈련 유치실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실적은 감소했으나, 매년 전남도를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꾸준히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더욱 많은 전지훈련 선수들이 전남도를 방문하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 최근 3년간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

▶ 동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5년 동계	2016년 동계	2017년 동계	전년대비 증감(%)
연 인 원	774,248	530,028	298,389	56.2% 감소
인 원	83,887	74,167	51,518	69.4% 감소
유치종목	42	44	39	8% 감소

## ▶ 하계 전지훈련 유치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5년 하계	2016년 하계	2017년 하계	전년대비 증감(%)
연 인 원	205,876	92,380	128,595	39.2% 증가
인 원	39,450	25,933	43,408	67.3% 증가
유치종목	43	36	36	
팀 수	966	308	346	12.3% 증가
경제효과	16,356	7,339	10,216	46% 증가

\* 경제 효과 산출기준 : 1인 1일당 79,447원(전남발전연구원 2015)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스포츠마케팅팀장 형광일, 담당자 김은진

## 나. 전국규모 골프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

전남도는 남도골프 인프라 홍보 및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매년 인지도가 높은 프로 대회와 초·중·고 학생부 대회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골프관광객 유치와 골프 꿈나무 육성에 노력했다.

도는 2006년부터 도지사배 전국 초등학생 골프대회와 전국 중·고등학생 골프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초·중·고 골프연맹에서 주관하는 6~7개의 학생부 골프대회 개최로 매년 초·중·고 골퍼와 학부모와 지도자 등 9천여명의 골프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인지도가 높은 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와 점프투어, 챔피언스 투어를 지속 유치하고 있다.

2017년에는 남자프로대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KPGA 코리안투어 골프대회를 유치했으며,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발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호심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와 KLPGA 왕중왕전 WITH

JNJ골프리조트 대회를 유치했다.

도는 매년 3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15~17개의 골프대회를 유치하여 매년 98천 여 명이 도를 방문했다.

골프대회 유치는 연간 78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도내 골프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전남이 골프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스포츠마케팅팀장 형광일, 담당자 김대식

### 4.3. 지역특성을 살린 스포츠대회 육성

#### 가.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

##### 1)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영암군 삼호읍 에프원로2 일원에 위치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으로 F1대회 뿐만 아니라 F3, GT 등 모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다.

1등급 서킷이 가지는 의미는 모터스포츠 전용 경주장으로서 국제자동차연맹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트랙 안전 구조와 최첨단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F1대회 개최 후 시설의 사후활용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지만, 영암 경주장은 국내 유일하게 순수 설립 목적을 통한 운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경주장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 6년동안 빠르게 성장하여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및 동호회 행사, 자동차 성능테스트를 위한 기업 임대 등 연간 280여 일이 활용되고 있다.

혹서기, 혹한기, 서킷 보수 기간을 제외한 293일의 임대가능 여건을 감안하면 96%의 가동율을 기록하고 있다.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을 통해 연간 32억원의 임대수입 뿐만 아니라 목포, 영암 등 경주장 인근 지역에 약 166억원 규모의 직접 소비지출효과를 거두고 있다.

3~10월의 주말에는 각종 국내외 대회 및 동호회 행사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중에는 기업참여로 관련 자동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2) 국제대회 유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한 ‘AFOS(Asia Festival Of Speed)’ 대회는 F1대회 이후 첫 국제대회로 세계 20개국 드라이버들과 70여대의 슈퍼카가 참가한 가운데 매년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기는 모터스포츠 축제로 진행됐다.

또한, 모터스포츠를 통한 한국·중국간 우호 증진을 위해 2014년 첫 교류전을 개최했던 ‘한·중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는 일본이 가세하면서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로 확대되어 개최됐다.

그리고, ‘한·중·일 슈퍼바이크 대회’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정상급 모터사이클 선수 150여명이 참가하여 국가 간 기술교류 및 모터스포츠 우호발전을 도모했다.

(주)슈퍼레이스가 주최하는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은 아시아 국가간 문화 교류 및 국내 모터스포츠 세계화를 목적으로 대회 참가규모가 100여대로 확대됐다.

## 3) 다양한 국내대회 유치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등 다양한 국내 프로 및 아마추어 대회가 개최되고 있어, 국내 모터스포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유일 ‘챔피언십’ 대회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를 비롯하여 최대 아마추어 레이싱인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서킷 문화 창출에 노력했다.

모터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아마추어 대회로 엑스타 슈퍼챌린지,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 그리고 모터사이클 대회인 코리아 슈퍼바이크 등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경주장이 주최하는 KIC-CUP(케이아이씨컵) 투어링카는 일

반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레이싱 입문 과정으로 모터스포츠 인 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했다.

2017년에 처음 창설되어 개최한 전남GT(Grand Touring)대회는 전남내구 등 7개 클래스와 230여 대의 차량이 참여하고 오프로드, 모터사이클, 드래그레이스, 드리프트 등 다양한 종목의 서킷문화 행사로 가족이 함께하는 전남만의 신개념 대회로 지속성장해 오고 있다.

【 2017 전남GT 대회 모습 】



추진부서 ● 모터스포츠담당관 김양수, 대회운영팀장 박재환, 담당자 양완길, 오홍록

#### 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수익콘텐츠 개발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모터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수익사업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에도 힘써 왔다.

### 1) 전남 모터 페스티벌

가정의 달 5월을 대표하는 '전남 모터 페스티벌'은 어린이들에게 모터스포츠의 꿈과 미래를 심어주고, 그들이 성장과 함께 자연스레 경주장을 찾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축제이다.

전남 모터 페스티벌은 경주장이 자동차 마니아만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체육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문화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했다.

특히, 2017년도는 8일간의 축제기간 동안 7만8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 【 2017 전남 모터 페스티벌, 모터락 공연 】



### 2) 동계 시즌권 스포츠주행

일반인의 경주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주장의 안전한 주행 및 서킷 이용 등 이론과 실기가 포함된 필수적인 기본교육을 'KIC라이선스 교육'을 통해서 실시했다.

‘KIC라이선스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에 한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트랙데이’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계시즌권 스포츠주행’을 마련하여 2014년 이후 1,062명이 이용했다. 한편, 2014년 이후 6,232명이 KIC라이선스를 취득했다.

### 3)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등

2017년부터는 청소년 단체 유치를 통한 경주장 미래고객을 선점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트스테이(Kart Stay)’라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모터스포츠 기초 종목인 카트(Kart)를 입문하는 교육이며 카트 라이선스와 레이싱카트 주행 및 캠핑 등을 주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2017년에는 3회 38명이 이용했다.

또한, 유아 및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켰다. 2017년에는 소형 전동차, 실내 놀이터 등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으로 2,314명이 방문했다.

### 4) 경기 진행요원(오피셜) 양성

경주장에서 상시 활용 가능한 지역 경기 진행요원(오피셜)을 지속 양성하여 안정적인 대회 운영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2015년부터 양성된 경기 진행요원 누적 인원은 533명으로 연인원 3,300여명 규모의 오피셜 수급에 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도 렌트카 업체를 경주장에 유치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85백만원의 차고지 임대수입을 올렸다.

#### 다. 도민의 쉼터 복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

자동차 경주장이 모터스포츠 마니아만의 공간이라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지역 주민에게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KIC레저테마파크 내 오토캠핑장과 카트장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풋살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스포츠 레저·공연·문화 공간으로써의 복합레저문화공간을 조성했다.

##### 1) 레저공간 조성

복합레저문화공간은 크게 캠핑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레저공간과 야간에도 족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공간, 친환경 어린이 놀이시설이 갖춰진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 휴식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카트경주장은 국제 규모의 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내 유일한 경주장으로 모터스포츠 활성화와 카트 인재 육성을 위해 드라이빙스쿨을 운영해 왔다.

한편, 국제규격의 안전도와 성능을 인정받은 이탈리아 KOSMIC KART사의 레이싱용, 레저 1·2인용, 주니어용 등 다양한 종류의 카트를 구비하여 타 카트장보다 우수한 시설임에도 저렴한 사용료로 누구든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2) 체육공간 조성

체육공간은 생활체육과 밀접한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구장 2면과 풋살장을 설치했으며, 풋살장은 피크닉 또는 상설무대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천연잔디로 조성했다.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 이용객을 위한 모험과 스릴을 즐길 수 있는 X-게임장과 어린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물 놀

이터 등 친환경 놀이시설도 설치했다.

특히, 이 놀이공간은 보호자가 아이들은 관찰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주 보는 장소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 3) 경주장내 도시숲 조성

2017년에는 전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자원연구소와 영암군으로부터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등 현수목 530주를 기증받아 경주장내 유희공간에 산책길과 소공원 등 도시 숲을 조성하여 수목 식재비 110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2018년에도 300여 주를 기증받아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레저 체육활동이나 캠핑장, 피크닉 등을 할 수 공간과 Rock(락)과 K-POP 등 음악(쇼)·모터스포츠 페스티벌 등 문화 행사를 통하여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 문화공간의 일부로 인식되어 모터스포츠와 함께 지역사회의 새로운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다.

**추진부서** ● 모터스포츠담당관 김양수, 시설관리팀장 박종환, 담당자 조해정, 김대철

## 라. 경주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2010년 F1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건설된 시설물로 축구장의 170배에 달하는 179만㎡ 규모로 국제자동차연맹(FIA) 공인 1등급 서킷이다.

전남도에서는 경주장의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며 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경주장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그랜드스탠드 등 67동이 있다. 정기점검 11회(반기 1회)와 정밀점검 2회(3년 1회)로 실시했다. 전기 2년 1회, 소방 년 1회, 가스 년 1회, 승강기 월 1회(위탁) 년 1회(정기)를 각각 안전점검을 했다.

‘GRADE 1’을 위한 국제자동차연맹(FIA) 서킷 라이선스 갱신은 의무사항으로 서킷 라이선스 인증서 발급 및 갱신(2차)을 마쳤다.

기존 경주장을 활용한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듀얼서킷은 경주장 활용도 제고 및 자동차 연관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서킷을 추가로 110일이 더 활용 가능해져 연 12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1대회는 중단했지만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쉴 틈 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동안 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경주대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술 개발 테스트는 물론 프로모터와 동호회 등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유일 1등급 서킷의 프리미엄 및 공신력을 유지하는 물론 타 경주장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최상의 조건에서 편안하고 현실감 있는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마. 레저스포츠 활성화

전남도는 지역 관광·문화자원과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각종 레저스포츠대회를 발굴·유치하여 스포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남도만의 특색 있는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산과 강, 평야와 섬, 테마 자전거길을 활용한 산악자전거, 카누,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 15종목, 42개 대회(2017년 기준)를 개최 지원했다.

특히 승마, 패러글라이딩, 요트, 자전거แร리, 지역문화탐방 청소년 자전거캠프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여 레저동호인 저변확대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남만의 매력있는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레저스포츠대회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 【 주요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현황 】

행 사 명	추진시기	장 소	참가인원
전남 가족축제 배드민턴대회	7월	목 포	3,000여명
순천만 산악 자전거대회	11월	순 천	1,500여명
영산강 종합 수상레저대회	5월	영 암	3,000여명
원 바이크원 코리아 페스티벌	9월	영 암	1,500여명
국제 자전거대회	4월	영 암	1,500여명
도지사배 전국 동호인테니스대회	6월	목 포	2,000여명
옥스팜 트레일 워커대회	5월	구 례	1,400여명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스포츠마케팅팀장 형광일, 담당자 김은진

### 바. 국제 철인3종 경기 대회 개최

전남도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국제철인3종 경기를 2017년 9월

전남 구례에서 국내 첫 풀코스 대회로 개최했다.

국제 철인3종 경기는 226Km 풀코스대회로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경기로 인간의 체력 한계에 도전하는 대회다.

또한,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전 세계에서 매년 350회 이상 개최하는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대회유치를 위해 2014년 1월 아이언맨 아시아 태평양지사(USM)를 방문하여 유치조건을 협의했고, 2014년 3월 24일 대회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을 통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프코스를 개최하고 2017년과 2018년 풀코스로 의무 개최기로 합의했다.

하프코스 대회로 치뤄진 2014년 대회에는 31개국 545명(해외 109명)이 참가했으며 2015년 대회 37개국, 573명(해외 213명), 2016년 대회 31개국 810명(해외 160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부터 풀코스로 승격된 2017년 대회는 구례 지리산 호수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까지 3개 종목 226Km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극한의 경기이다.

이 경기에는 역대 가장 많은 21개국 1,655명(해외 628명)이 참가해 국내외 선수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으며, 2018년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추진부서** ●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열, 스포츠마케팅팀장 형광일, 담당자 김은진

#### 사. 국수산맥 국제 바둑대회 개최

전남도는 2014년부터 국수(國手)의 고장인 강진, 영암, 신안군 일원에서 한국기원과 전남바둑협회에 위탁하여 매년 7억원(도비 2.5,

군비 4.5)을 투입하여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를 개최했다.

2017년 제4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7월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국수(國手)의 고향인 강진(김인), 영암(조훈현), 신안(이세돌)에서 순회 개최했다.

28일 강진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강진, 영암, 신안을 순회하며 4개국 프로 바둑기사가 국가 대항전으로 펼치는 ‘한·중·일·타이완 단체바둑대항전’, ‘국제페어 바둑대회’ 등 ‘국제 프로바둑대회’와 중국, 말레이시아 등 11개국 136명의 외국 어린이 선수단과 국내 선수단 422명 등 558명이 참가하는 ‘국제어린이 바둑대축제’가 개최됐다.

또한, 바둑축제 다음날인 8월 1일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남도의 맛과 멋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남도 투어를 실시하여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2018년에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명실공히 국제대회로써 인정받고 도약할 수 있도록 문체부 공모를 통해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청소년 바둑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총 11억원의 대회로 치러질 계획이다.

2018년 7월 27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제5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면서 국내외 프로대회와 전남·전국 청소년대회, 전남바둑 활성화 포럼, 청소년 바둑캠프 등으로 내실 있게 구성했다.

전남도는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바둑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5. 경관이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 5-1. 도민 참여에 의한 경관조성 분위기 확산

#### 가. 주민 주도형 경관개선사업 추진

전남도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남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졌던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을 2014년 11월, 도민 340여명을 위촉하고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은 생활주변 경관환경 점검과 경관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22개 시·군의 읍·면·동별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은 2012년 활동 이래 지금까지 9,813건의 활발한 경관개선 활동을 펼쳤다.

#### 【『좋은경관만들기추진단』 연도별 활동 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활동분류 및 활동내용							활동자별	
		경관보전활동				경관개선활동			공무원	도민
		소계	청결활동	광고물정비	저해요인 제거	소계	녹지공간 조성	경관환경 개선		
계	9,813	7,678	2,673	4,458	547	2,135	1,325	810	8,038	1,779
2012	319	319	100	219	-	-	-	-	319	-
2013	954	467	227	98	142	487	41	446	954	-
2014	1,253	1,065	325	640	100	188	101	87	1,253	-
2015	1,917	1,358	584	694	80	559	504	55	1,463	457

추진단에서 발굴한 경관개선 아이디어는 각종 경관개선사업에 반

영하여 추진하고 있고, 2014년부터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 10개 시·군 12개소를 시행했다.

또한, 남도의 특징을 잘 살린 정감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10개 시·군, 12개소를 추진했다.

2018년에는 ‘도민이 가꾸는 남도경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원, 디자인 요소를 접목한 사업 아이টে을 발굴해 생동감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쇠퇴한 도심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경관개선 사업으로 공공주도가 아닌 주민(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처럼 좋은경관만들기 추진단의 활발한 활동은 전남 경관의 청정함과 쾌적함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경관조성팀장 김희철, 담당자 송형근

#### 나. 체계적인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남도는 2006년 5월 12일 전국 최초로 경관조례를 제정한 이후 6차례에 걸친 조례개정, 각종 경관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경관법」 개정(시행 2014. 2. 7.)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사전경관협의제를 도 조례로 제도화했다.

경관법 개정 등 상황변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한 조례 개정을 통

해 제도화함으로써 경관자원의 훼손을 줄이고 지역특성을 살린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경관특성을 반영한 경관권역, 경관축, 중점경관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전라남도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2014. 7.~ 2015. 11.)했다. 이를 통해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전남다운 경관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道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를 확대 위촉하는 등 (28명 → 45명→51명)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경관조성팀장 김희철, 담당자 최순철

#### 다. 도민 공감의 옥외광고문화 정착

전남도는 도시 공간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옥외광고 종사자들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2010년)로 시행한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는 2017년까지 9회 운영했다. 옥외광고사업자, 공무원, 상가주 등 국내·외 현장 견학 및 실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까지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간판개선 사업’ 등 13개소 5,099백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매년 100여 개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 관계자들의 간판문화 마인드 향상과 디자인 배양 능력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우수 옥외광고물 및 예쁜 간판 그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우수작품은 한국 옥외광

고 대전 출품 및 시·군 순회전시를 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안전 등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민·관 합동 및 교차 단속을 실시해 매년 2,500천여 건을 정비하고 있다. 도와 시·군, 옥외광고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년 2회(상, 하반기) 전개하여 도민 의식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경관조성팀장 김희철, 담당자 김재산

## 5-2. 공공디자인 개발 지원 및 산업화

### 가. 도정현안 사업 디자인 개발 및 산업화 지원

#### 1) 지역 상품 네이밍 및 친환경브랜드 디자인개발

전남도는 ‘상품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상품 네이밍 및 브랜드 디자인 개발’은 재정과 경영환경이 열악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의 브랜드·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여 지역상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차별화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6년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마을기업 36개사를 선정,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상품 네이밍, 브랜드디자인, 포장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등 기업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지원내용을 차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디자인 개발·지원했다.

그 결과 소포장, 꾸러미 상품 등 실용성과 디자인이 가미된 독창적인 상품 디자인으로 상품성을 강화하며 지원기업의 성공적인 판로 확장 및 유통망 다각화 등에 크게 도움이 됐다.

2018년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6차산업 인증기업까지 사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마케팅 전략에 따른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2) 도 상징물(CI·캐릭터) 매뉴얼 개선

전남도는 2015년 7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지난 2000년 개발된 상징

물(CI·캐릭터)을 행정 환경에 맞춰 시인성을 높이고 역동성 있게 새롭게 개선했다.

이전 CI는 개념 위주의 정적인 이미지, 저채도의 어두운 색상 등 전남의 미래지향적 비전 표현의 한계와 시각적 인식 오류 등 문제가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각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상징물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색채와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시설물 일시 교체에 따른 막대한 소요예산을 절감했다.

CI 심벌마크는 상징요소를 확대하고 시인성과 역동성을 높여 밝고 긍정적인 도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 커진 태양은 따뜻한 온정을, 더 밝아진 노랑 바탕은 소통과 희망을 상징한다. 성장·진화하는 에너지는 녹색 잎으로, 젊은 도전과 힘찬 기상은 파랑색의 파도로 표현했다.

아울러 도 캐릭터 남도와 남이는 디자인 요소를 단순화시키고 푸른색 한복을 따뜻한 색상을 변경해 온정 있고 밝은 이미지로 친근감을 부여했다.



### 3) 도 전용서체 ‘푸른전남체 개발·활용

전남도는 2016년 일관성 있고 통일된 도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용서체인 ‘푸른전남체’를 개발했다.

도는 2014년 전국 최초 도 CI 상징체계를 통합했으나 전용서체가 없어 시각적 통일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PC상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전용서체를 개발 후, 선호도 조사를 통해 ‘푸른전남체’로 명칭을 확정했다.

‘푸른전남체’는 도 CI서체를 기본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며 역동성이 있게 디자인됐다. 정보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또렷하고 명료한 조형성을 띄도록 했다.

도는 2016년 570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서체를 전국에 무료 배포했다. 2017년 ‘한글과 컴퓨터’와 협약을 체결해 한컴오피스에 탑재하는 등 그 사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앞으로 도내 공공환경 분야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전라남도 이미지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 4)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등록 관리

2010년도부터 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중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와 활용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브랜드 23건, 홍보물 및 시각매체 7건, 시설물 8건, 기타 5건 등 총 43건(사업비 615백만원)의 디자인 개발을 완료해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품격 있는 전남 이미지 창출에 기여했다.

지식재산 창출은 차별적인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최근 브랜드 및 디자인 권리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상표·디자인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도가 개발한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27개 사업 62건을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으로 등록했다.

도는 향후 등록된 브랜드의 D/B 구축 및 정기적인 활용도 조사 등을 통해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디자인 수정·보완을 실시해 전남도의 품격 향상 및 권리보호,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공공디자인팀장 조경숙, 담당자 박지연, 박유나

## 나. 친환경디자인 발굴 및 육성

### 1) 친환경디자인전 개최

전남도는 도민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매년 친환경디자인전 개최하고 있다. 전남의 경관·공공디자인 분야 사업 성과물과 국·내외 우수 포장디자인 및 친환경제품 등을 전시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디자인전은 2009년 우수포장디자인전시회로 시작해 2014년 친환경디자인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행사를 함께 개최하고 있다. 2017년까지 총 9회(사업비 345백만원)를 여는 동안 731,000명이 다녀갔다.

특히 제4회 2017년 친환경디자인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2017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개최해 디자인 관련 전시, 디자인 잡(JOB) 매칭데이, 디자인데이, 체험행사, 설문·경품 행사 등을 추진했다.

미국, 스위스 등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업사이클 디자인 상품을 비롯한 친환경디자인 제품 및 다양한 소재와 컨셉을 적용한 해외 농수 특산물 포장디자인 등을 전시해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한 자리에 볼 수 있었다.

향후 개최하는 친환경디자인전은 관련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전남의 디자인분야 대표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2) 친환경디자인상 개최

친환경디자인상은 차세대 디자인 인재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자원과 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디자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아이디어 분야와 기존에 조성한 공간 등을 대상으로 한 기설치 분야로 나눠 공모하며,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2016년, 2017년 2회 개최해 총 40작품(2017년 17, 2016년 23)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은 친환경디자인전 전시, 작품도록 게재 및 배부 등을 통해 홍보했다.

디자인 인재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공공디자인팀장 조경숙, 담당자 박유나

## 다.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

전남도는 지역의 정체성과 예술성, 기능성 등을 반영한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을 비롯한 공공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디자인 시범거리는 총 3년간 1개소당 20억을 투입해 조성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거리 환경 및 가로시설물 개선 등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시·군 공모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의 적정성, 사업실현 및 사후관리 대책 등을 기준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010년부터 시작돼 1, 2차 사업으로 8개소를 완료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된 3차 사업 2개소(광양시, 담양군)는 2018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공공디자인팀장 조경숙, 담당자 박유나

## 라.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성공개최

### 1) 개최개요

전남도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5일부터 5월 29일까지 25일간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를 전남농업기술원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친환경디자인 개념과 중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박람회는 ‘7개의 의미있는 전시관’, ‘주제공연 하늘정원’, ‘년버벌 페스티벌’ 등 볼거리가 풍성한 문화박람회였다.

상설 전시관에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통해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과 굴뚝 없는 문화산업의 경제효과를 알렸다. 빛가람혁신도시에서는 국제학술회의 등 분야별 학술행사가 열렸다.

친환경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농업박람회의 기본 시설을 활용하고, 천막과 텐트를 최소화해 건축물 신축비용과 자원낭비를 줄였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비콘시스템’을 도입해 행사장 안내용 리플릿 등 사용을 줄이기도 했다.

## 2) 개최평가 및 계획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는 93만명이 방문해 목표 관람객 88만명을 넘었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의 방문이 많았다. 이는 관람객 주요 대상을 만 10세로 어린이로 설정하고, 박람회가 교육적,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박람회 직접수입은 입장료 13억원, 임대수입 2억원, 휘장사업 6억원 등 21억원으로 목표액 26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박람회 사전 홍보 및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전판매는 순조로웠으나 어린이 등 무료입장 대상이 많아 수입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 박람회는 다양한 전시행사와 문화행사들로 추상적이었던 친환경디자인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미래산업으로써 친환경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번 행사 개최로 전남의 친환경디자인 산업의 국제적인 지위를 선점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전남형 친환경디자인을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힘쓸 계획이다.

추진부서 ● 문화산업디자인과장 김태식, 공공디자인팀장 조경숙, 담당자 최종현

